

화학제품, 4월 생산량 4% 증가

통계청, 석유제품도 12% 늘어 ... 고무·플라스틱은 2.4% 감소

화학제품 생산이 3월 3% 감소에서 4월 4% 증가로 전환됐다.

5월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, 4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.9% 늘어 증가세가 10개월째 이어졌다. 특히, 자동차와 반도체, 기계장비가 상승세를 이끌었다.

기계장비 생산이 49.3%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, 자동차(39.0%), 반도체 및 부품(36.7%)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기타운송장비(-9.0%), 담배(-17.5%), 광업(-14.8%) 등은 줄었다.

전월대비로는 석유제품 생산이 12.0% 증가한 것을 비롯해 영상음향통신(6.4%), 화학제품(4.0%)이 호조를 보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(-3.5%), 고무 및 플라스틱(-2.4%), 자동차(-1.1%) 등은 감소했다.

출하량은 전월대비 1.1%, 전년동기대비로는 17.3% 증가했다.

재고는 전월대비 영상음향통신(8.1%) 등이 늘면서 전월대비 1.5% 증가했다. 전년동월대비로는 종이제품(-34.9%), 의복 및 모피(-28.3%)가 감소했으나, 반도체 및 부품(59.3%), 자동차(17.5%) 등의 증가로 10.9% 증가했다.

제조업의 재고율지수(재고/출하비율)는 95.1로 전월대비 0.4p 상승했다.

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반도체 및 부품,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.2% 증가했으며,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전월대비 0.2%, 전년동월대비 14.1% 증가했다.

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2.2%로 전월대비 0.2%p 하락했다.

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5.9%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25.7% 증가했다. 국내 기계수주는 공공부문의 전기업(원자로) 및 민간부문의 반도체 및 부품(평면디스플레이 제조장비), 기계장비(수치제어식 선반) 등에서 발주가 모두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5.6% 증가했다.

건설기성은 건축·토목공사가 부진해 전월대비 7.0%, 전년동월대비 5.4% 감소했다. 건설수주(경상)는 건축공사는 증가했으나 토목공사에서 기저효과로 감소해 14.6% 감소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31>